


제36호(2017. 6. 27.)

과일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지성태 유주영



1. 전체 과일 수입 동향	1
2. 부류별 수입선 집중도 변화	4
3. 품목 구성과 비중 변화	8
4. 세부 품목별 수입선 변화	11
5. 시사점	15

감 수	구자춘 부연구위원	061-820-2023	selenium78@krei.re.kr
내용 문의	지성태 부연구위원	061-820-2304	dongsimjst@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현안분석」은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약

- **과일 수입액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 중 7.2% 차지**
 - 2016년 기준 전체 과일 수입액은 17.1억 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0.4% 증가
 - 과일 중에서도 신선 온대과일 수입액 비중이 37.6%로 가장 높고 점차 상승하는 추세
 - 전체 과일 수입량은 106.4만 톤이고, 그중 신선 열대과일이 46.3만 톤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신선 온대과일(29.0만 톤), 주스류(7.8만 톤), 냉동과일(3.7만 톤), 건조과일(1.2만 톤) 순임.
- **과일 수입대상국 상위 10개국은 모두 FTA 체결국이고 수입선 다변화 경향이 나타남.**
 - 신선과일 수입대상국은 미국, 필리핀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근 중남미국가 등으로 수입선 확대
 - 가공과일의 수입대상국 집중도는 신선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수입선 전환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
- **전체 수입과일에서 신선과일, 냉동과일, 견과류조제품의 수입액 비중이 상승하고 주스류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
 - 신선과일 중 국내 소비자 선호도 상승으로 포도, 체리, 망고의 수입액 비중이 상승한 반면, 오렌지, 키위, 파인애플의 비중은 하락
 - 가공과일 중 주스류의 수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세부품목별 비중이 변화하였고, 냉동과일은 수입 증가로 비중 상승
- **수입과일 세부 품목별 수입대상국이 대체로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수입선이 다변화되는 추세**
 - 온대과일 수입대상국이 미국, 칠레, 뉴질랜드에 집중된 상황에서 최근 FTA 효과 등으로 수입선이 일부 국가로 확대
 - 열대과일 수입선 중 필리핀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작황 부진 등으로 수입선이 다른 동남아국가와 중남미국가로 다변화되는 추세
 - 주스류 수입대상국이 미국, 칠레 등에 집중된 상황에서 최근 수입량 급증 품목(자몽·레몬·사과주스)을 중심으로 수입선 다변화 추세 뚜렷
- **수입과일 선호도 상승과 소비패턴 다양화, 수입선 다변화로 신선과일 외에 냉동·건조과일 수입도 증가 전망**
 - 단, 품목별 수입선 집중도가 여전히 높아 주요 수출국의 수급상황이 수입품목구조 변화와 수입선 전환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
 - 이에 과수경쟁력제고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 실효성 제고, 국산 과일 소비 촉진, 신규 진입 과수농가에 수입정보 제공을 통해 과일 수입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2016년 전체 과일 수입액은 17.1억 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0.4% 증가

1. 전체 과일¹⁾ 수입 동향

1.1. 과일 수입 추이

□ 과일 수입액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 중 7.2% 차지

- 2016년 기준 전체 과일 수입액은 17.1억 달러로 2000년 이후 연평균 10.4% 증가
 - 동 기간 신선과일과 가공과일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2.0%와 8.2%로 신선과일이 전체 과일 수입 증가를 주도
 - 과일 수입액의 연평균 증가율(10.4%)이 전체 농축산물(6.7%)보다 높은 가운데 신선과일과 가공과일 수입액이 전체 농축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6%p와 0.6%p 상승

표 1. 과일 수입액 및 비중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연평균 증감률
과 일	3.5 (4.1)	4.2 (4.2)	5.6 (4.9)	7.1 (5.4)	8.1 (4.1)	9.4 (4.8)	13.9 (5.5)	16.4 (6.3)	17.1 (7.2)	10.4
신선 과일	1.8 (2.1)	2.2 (2.2)	3.4 (2.9)	4.5 (3.4)	5.0 (2.6)	6.0 (3.1)	8.8 (3.5)	10.7 (4.2)	11.2 (4.7)	12.0
가공 과일	1.7 (1.9)	2.0 (2.0)	2.3 (2.0)	2.6 (2.0)	3.1 (1.6)	3.4 (1.7)	5.1 (2.0)	5.7 (2.2)	5.9 (2.5)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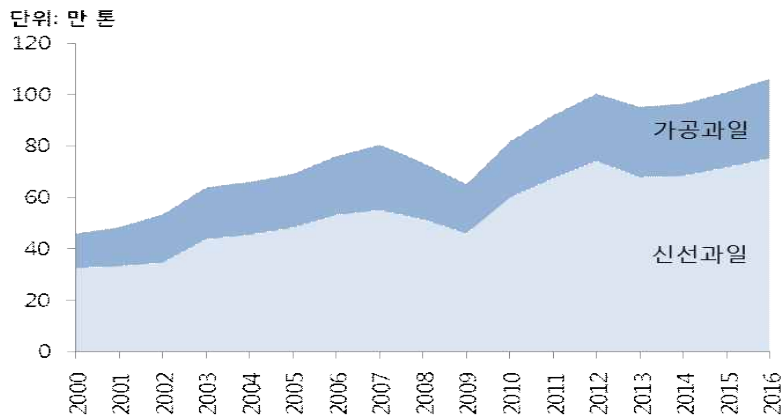
주: () 안의 수치는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2016년 기준 전체 과일 수입량은 106.4만 톤으로 2000년의 46.0만 톤 대비 2.3배 증가
 - 동 기간 신선과일과 가공과일 수입량은 모두 2.3배씩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도 5.4%씩 증가
 - 신선과일 수입량은 32.6만 톤에서 75.3만 톤으로 증가하여 가공과일에 비해 더 큰 증가폭을 보임.

1) 과일을 신선과일과 가공과일로 구분하였고, 신선과일은 온대과일과 열대과일로, 가공과일은 주스, 건조, 냉동, 기타로 세분화함. 신선 열대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아보카도, 용과, 파파야, 대추야자, 코코넛 등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모두 신선 온대과일로 분류함.

신선 온대과일의 수입액 비중은 37.6%로 전체 과일 수입 증가 주도

그림 1. 과일 수입량 추이



1.2. 부류별 과일 수입 비중 변화

□ 과일 중에서도 신선 온대과일의 수입액 비중이 37.6%로 가장 높고 상승 추세를 보임

- 2016년 기준 전체 과일 수입액 중 신선과일과 가공과일의 비중은 각각 65.4%와 34.6%이며, 2000년 대비 신선과일의 비중은 13.6%p 상승한 반면 가공과일은 그 만큼 하락
 - 신선과일 중에서도 온대과일 수입액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열대과일의 비중은 다소 정체
 - 가공과일 중에서는 주스류 수입액 비중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반해 건조과일과 냉동과일은 소폭 상승

표 2. 부류별 과일 수입액 비중 추이

구 분		2000(a)	2005	2010	2016(b)	증감(b-a)
신선	열대	25.2	27.4	29.7	27.9	2.6
	온대	26.6	35.0	34.5	37.6	10.9
	소계	51.8	62.4	64.2	65.4	13.6
가공	주스	28.5	16.9	15.0	9.7	-18.9
	건조	2.5	1.5	2.3	3.9	1.4
	냉동	1.7	2.5	3.7	5.2	3.5
	기타	15.4	16.7	14.9	15.8	0.4
	소계	48.2	37.6	35.8	34.6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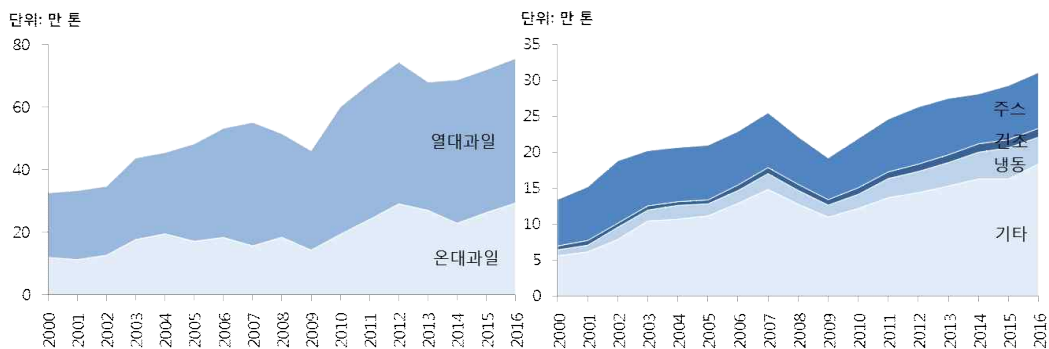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신선 열대과일, 냉동과일과 건조과일의 수입량 증가세 뚜렷

□ 부류별 과일 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신선 열대과일, 냉동과일과 건조과일 수입량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신선과일 중 수입액 비중이 높은 온대과일보다 수입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열대과일의 수입량이 훨씬 많음.
 - 2016년 기준 열대과일과 온대과일의 수입량은 각각 46.3만 톤과 29.0만 톤이며, 2000년보다 각각 25.7만 톤과 17.1만 톤이 증가
 - 2000년 이후 기간 열대과일과 온대과일 수입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2%와 5.7%임.
 - ※ 2016년 기준 온대과일 중 오렌지, 포도, 체리, 키위 수입단가는 각각 톤당 1,423달러, 2,976달러, 8,714톤, 2,007달러이고, 열대과일 중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용과 수입단가는 각각 톤당 900달러, 929달러, 4,049달러, 2,243달러임.
- 가공과일 중 주스류 수입량은 정체된 반면 건조과일과 냉동과일 수입량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임.
 - 2000년대 들어 주스류 수입량은 7만 톤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 전체 가공과일 중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조과일과 냉동과일 수입량은 2016년 각각 1.2만 톤과 3.7만 톤을 기록한 가운데 2000년 이후 연평균 5.2%와 10.0% 증가

그림 2. 부류별 과일 수입량 추이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10대 과일 수입대상국 모두 FTA 체결국이고 수입선 집중도는 다소 낮아짐

2. 부류별 수입선 집중도 변화

2.1. 전체 수입과일

□ 과일 수입대상국 상위 10개국 모두 FTA 체결국이고 수입선 집중도는 다소 낮아짐

- 과일 수입대상국 중 미국과 필리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FTA 체결국의 비중이 발효를 계기로 상승하거나 주요 수입선이 FTA 비체결국에서 체결국으로 전환 되는 경향을 보임.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로부터의 과일 수입액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고, 최근 베트남, 뉴질랜드, 페루, 미얀마, 폴란드 등 FTA 체결국이 상위 10개국에 포함됨.
 - 한편, FTA 비체결국인 브라질, 대만, 남아공으로부터의 과일 수입액 비중은 크게 하락
 - 수입선 다변화로 과일 수입대상국 상위 10개국의 비중이 하락함으로써 집중도가 낮아짐.

표 3. 전체 과일 수입대상국 상위 10개국 수입액 비중

단위: %

순위	2000년		2005년		2010년		2016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33.4	미국	31.4	미국	33.1	미국	32.6
2	필리핀	29.8	필리핀	28.7	필리핀	30.1	필리핀	23.6
3	브라질	11.6	중국	8.2	칠레	11.0	칠레	10.7
4	중국	5.6	뉴질랜드	7.6	뉴질랜드	5.8	중국	4.2
5	대만	3.6	브라질	5.2	중국	5.7	태국	4.1
6	칠레	3.2	칠레	4.8	브라질	2.8	베트남	3.7
7	뉴질랜드	2.2	이란	2.6	태국	2.3	뉴질랜드	3.6
8	스페인	1.8	태국	2.6	미얀마	1.1	페루	2.6
9	태국	1.7	스페인	1.8	대만	1.0	미얀마	1.5
10	남아공	1.1	남아공	0.8	남아공	0.6	폴란드	1.3
합계	-	94.1	-	93.6	-	93.5	-	88.0

주: 음영은 FTA 체결국을 나타내며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신선과일 수입대상국이 중남미국가 등으로 확대되어 수입선 다변화

2.2. 신선과일

□ 신선과일 수입대상국은 일부 국가에 집중된 가운데 최근 중남미국가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경향이 나타남

- 신선과일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 필리핀, 칠레, 뉴질랜드 등으로 그 집중도가 매우 높고, 수입 품목의 다변화와 수출국 작황부진에 따른 수입선 전환으로 집중도가 다소 낮아짐.
 - 2016년 기준 상위 5개국(미국, 필리핀, 칠레, 뉴질랜드, 페루)로부터의 신선과일 수입액 비중의 합은 86.3%로 2005년 대비 8.0%p 하락
 - 온대과일 주요 수입대상국인 미국(오렌지, 체리, 자몽, 레몬), 칠레(포도), 뉴질랜드(키위)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92.1%에 달함.
 - 열대과일 주요 수입대상국인 필리핀(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이 74.0%로 2005년 대비 15.9%p 하락한 가운데 중남미국가 등 타 국가로의 수입선 전환이 나타남.

표 4. 신선과일 수입대상국 상위 10개국 수입액 비중

단위: %

순위	신선과일							
	2005년		2016년		온대 2016년		열대 2016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필리핀	39.5	미국	36.8	미국	61.4	필리핀	74.0
2	미국	35.9	필리핀	31.5	칠레	22.2	태국	6.4
3	뉴질랜드	11.6	칠레	12.7	뉴질랜드	8.5	에콰도르	4.5
4	칠레	7.3	뉴질랜드	5.2	페루	3.2	미국	3.6
5	이란	3.8	페루	3.0	남아공	2.2	과테말라	3.1
6	남아공	0.6	태국	2.7	호주	1.0	페루	2.8
7	호주	0.6	에콰도르	1.9	이스라엘	0.5	코스타리카	1.4
8	스페인	0.2	과테말라	1.3	스페인	0.4	멕시코	1.1
9	태국	0.1	남아공	1.3	멕시코	0.2	베트남	0.8
10	대만	0.1	호주	0.6	터키	0.1	뉴질랜드	0.8
합계	-	99.7	-	97.2	-	99.7	-	98.6

주: 음영은 중남미국가를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신선과일에 대한 비관세조치(검역)가 해제될 경우 무역 창출효과나 전환효과로 이어짐

〈신선과일 비관세조치(검역)와 무역 창출·전환효과〉

- FTA 양허 대상품목일지라도 비관세조치(검역) 등으로 FTA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히, 신선과일은 WTO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대상으로 자국민의 식품안전과 국내 관련 산업 보호 차원에서 FTA 발효 이후에도 반입이 금지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칠레산 체리는 한·칠레 FTA 발효 10년이 초과한 2016년에 비로소 수입이 허용되었고, 페루산 망고는 한·페루 FTA 발효 6년차인 2016년 수입 허용
 - 비관세조치가 해제될 경우 수입이 급증하거나 수입선이 전환되는 소위 무역 창출효과 혹은 전환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표 5. FTA 발효 이후 수입이 허용된 품목의 수입 현황

단위: 톤

FTA 체결국	품목	연도별 수입량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칠레	레몬	0	542	555	409	420	724	966	1,037	1,407	1,330	2,904	4,353	2,093
	오렌지	33	17	1,533	1,896	2,740	2,412	3,229	3,760	3,136	2,355	1,807	1,263	1,755
	블루베리	0	0	0	0	0	0	0	0	139	475	923	1,257	1,544
	체리	0	0	0	0	0	0	0	0	0	0	0	0	690
아세안	망고스틴	0	0	0	0	0	0	0	378	202	341	650	448	402
	망고	0	0	0	0	0	0	0	0	0	0	55	211	394
EU	키위	0	0	0	0	0	0	0	0	0	436	662	409	161
페루	망고	0	0	0	0	0	0	0	0	0	0	0	0	525

주 1) 밝은 음영은 해당 국가(경제권)와 체결한 FTA 발효기간, 어두운 음영은 해당 품목의 수입 허용기간을 나타냄.
 2) 칠레산 블루베리의 수입실적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통계에 기초함.
 3) 아세안 망고스틴은 태국산, 망고는 베트남산이고, EU 키위는 이탈리아산임.
 자료: 지성태 외(2016),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수입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87쪽.

가공과일의 수입대상국 집중도는 신선과일보다 낮으며, 수입선 전환이 비교적 뚜렷

2.3. 가공과일

□ 가공과일의 수입대상국 집중도는 신선과일에 비해 낮은 편이며, 수입선 전환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남

- 수입품목의 다변화와 FTA 이행에 따른 교역환경 개선으로 가공과일 수입선이 다변화됨.
 - 2016년 기준 가공과일 수입대상국 상위 10개국 중 브라질을 제외하고 모두 FTA 체결국이고, 상위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의 합은 62.4%로 2005년 대비 14.5%p 하락
 - 오렌지주스(미국, 브라질), 사과주스(칠레, 중국, 미국), 포도주스(칠레, 미국), 자몽주스(미국, 이스라엘), 레몬주스(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등 개별 주스류의 수입선이 상이한 가운데 미국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음.
 - 건조과일 수입대상국 중 폴란드(아로니아 분말)와 칠레의 비중은 크게 상승한 반면, 핀란드의 비중은 2010년 6.2%까지 상승했다가 2016년 1.5%로 하락했고, 터키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 냉동과일 수입대상국 중 베트남과 칠레의 비중은 크게 상승한 반면, 미국의 비중은 2010년 38.9%까지 상승했다가 2016년 17.7%로 하락했고, 중국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

표 6. 가공과일 수입대상국 상위 10개국 수입액 비중

단위: %

순위	가공과일															
	2005년		2016년		주스				건조				냉동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24.0	미국	24.7	미국	34.0	미국	38.4	미국	63.2	미국	35.4	중국	62.9	베트남	22.8
2	중국	21.8	중국	12.3	브라질	30.3	칠레	8.7	필리핀	13.4	폴란드	23.7	태국	12.5	칠레	19.5
3	브라질	13.7	베트남	10.0	스페인	8.7	브라질	5.8	터키	9.1	칠레	9.7	캐나다	6.7	미국	17.7
4	필리핀	10.7	필리핀	8.8	중국	4.9	스페인	5.4	스위스	3.9	필리핀	7.9	미국	5.0	중국	16.4
5	태국	6.6	칠레	6.7	대만	2.4	중국	5.1	인도네시아	2.2	중국	6.3	베트남	2.9	페루	11.8
6	스페인	4.4	태국	6.6	이탈리아	2.2	대만	4.4	브라질	1.4	브라질	4.5	프랑스	2.3	태국	3.1
7	캐나다	1.7	미얀마	4.4	캐나다	2.1	이스라엘	4.3	프랑스	0.9	인도네시아	3.1	일본	1.5	캐나다	1.9
8	남아공	1.2	폴란드	3.7	독일	1.4	이탈리아	3.7	에콰도르	0.9	핀란드	1.5	칠레	1.4	필리핀	1.7
9	일본	1.2	브라질	2.2	일본	1.3	베트남	3.1	중국	0.9	뉴질랜드	1.3	뉴질랜드	1.3	멕시코	0.8
10	대만	1.1	페루	1.9	네덜란드	1.3	터키	2.8	이탈리아	0.8	터키	1.1	폴란드	0.6	터키	0.7
합계	-	86.4	-	81.2	-	88.6	-	81.7	-	96.8	-	94.7	-	97.2	-	96.3

주: 음영은 FTA 체결국을 나타내며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체 수입과일에서 신선과일, 냉동과일의 비중 상승, 주스류의 비중 하락

3. 품목 구성과 비중 변화

3.1. 전체 수입과일

□ 전체 수입과일에서 신선과일(체리, 망고), 냉동과일, 견과류조제품의 수입액 비중이 상승하고 주스류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

○ 전체 과일 수입이 증가하나 소비품목 다양화로 개별 품목의 수입액 비중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체리, 망고 등의 비중은 상승

- 2016년 기준 수입과일 10대 품목 중 신선과일이 7개 품목이고 그 비중의 합이 58.5%임.
- 그 외 냉동과일(과실·견과류), 기타가공과일(과실·견과기타, 견과류조제품)이 포함됨.
- 2000년대 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주스류(오렌지주스, 포도주스)의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

표 7. 전체 수입과일 10대 품목 수입액 비중

단위: %

순위	2000년		2005년		2010년		2016년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품목	비중
1	바나나	21.6	오렌지	19.6	바나나	22.4	바나나	19.2
2	오렌지	18.2	바나나	18.7	오렌지	14.0	오렌지	12.9
3	오렌지주스	14.7	키위	8.7	포도	9.0	포도	8.5
4	과실주스	5.0	오렌지주스	6.6	키위	6.0	체리	7.3
5	포도주스	4.3	파인애플	5.7	과실·견과기타*	5.9	과실·견과류**	5.1
6	포도	3.6	과실·견과기타	4.8	파인애플	4.8	과실·견과기타	4.9
7	과실카테일***	3.6	포도	3.8	오렌지주스	4.4	견과류 조제품****	4.7
8	파인애플	3.1	포도주스	3.8	체리	3.5	파인애플	4.2
9	키위	2.5	견과류 조제품	3.2	과실·견과류	3.3	키위	3.6
10	견과류 조제품	2.3	과실카테일	2.5	포도주스	3.3	망고	2.7
합계	-	78.8	-	77.4	-	76.7	-	73.3

주 1) *: 조제저장처리, **: 초본류 딸기, 나무딸기 등 이외 기타/냉동, ***: 설탕 첨가/밀폐용기의 것, ****: 낙화생, 밤 이외 기타/기타 방법 조제

2) HS코드를 기준으로 품목을 구분함.

3) 음영은 가공과일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신선 수입과일 중 포도, 체리, 망고의 수입액 비중 상승, 오렌지, 키위, 파인애플의 비중 하락

3.2. 신선과일

□ 수입가격 하락과 선호도 변화²⁾가 신선 수입과일의 품목 구성 및 수입액 비중에 영향을 미침

- 신선과일 수입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FTA 이행에 따른 관세 인하와 취급·섭취 간편성 등에 대한 고려로 일부 품목의 수입 비중이 높아짐.
 - 2016년 기준 신선 수입과일 7대 품목 중 포도, 체리, 망고의 수입액 비중은 각각 13.0%, 11.2%, 4.1%로 2005년 대비 각각 6.8%p, 8.9%p, 3.5%p 상승
 - ※ 칠레산 포도와 미국산 체리에 대한 기준관세율은 각각 45%와 24%로 2014년과 2012년 철폐되었고, 아세안 망고에 대한 협정관세율은 2016년 30%에서 24%로 인하
 - 한편, 동 기간 오렌지, 키위, 파인애플의 수입액 비중은 각각 11.6%p, 8.4%p, 2.7%p 하락
 - 온대과일과 열대과일 내에서의 품목별 수입액 순위는 체리, 망고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음.

표 8. 신선 수입과일 7대 품목 수입액 비중

단위: %

순위	신선과일							
	2005년		2016년		온대 2016년		열대 2016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오렌지	31.4	바나나	29.4	오렌지	34.4	바나나	69.1
2	바나나	30.0	오렌지	19.8	포도	22.6	파인애플	15.1
3	키위	13.9	포도	13.0	체리	19.5	망고	9.7
4	파인애플	9.1	체리	11.2	키위	9.6	용과	2.7
5	포도	6.2	파인애플	6.4	레몬	5.5	아보카도	2.5
6	체리	2.3	키위	5.5	자몽	4.7	망고스틴	0.5
7	레몬	1.3	망고	4.1	베리류	3.0	두리안	0.2
합계	-	94.2	-	89.5	-	99.4	-	99.8

주: 음영은 열대과일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3. 가공과일

□ 가공 수입과일 중 주스류의 수입액 비중은 하락하고, 냉동과일의 비중은 상승하는 추세

- 가공과일 중 주스류의 수입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세부품목별 비중이 변화하였

2) 수입 과일의 기본 맛(당도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건강기능성이나 취급·섭취 간편성의 장점을 갖고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이용선 외, 2014. 과일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 분석. R7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4쪽).

고, 냉동과일은 수입 증가로 비중 상승

- 2016년 기준 가공 수입과일 10대 품목 중 주스류의 수입액 비중은 17.4%로 2005년(36.3%) 대비 18.9%p 하락
- 동 기간 주스류 세부품목 중 오렌지주스와 포도주스의 수입액 비중은 각각 23.4%p와 11.3%p 하락했고, 기타단일과실주스와 과즙음료의 비중은 각각 8.3%p와 7.9%p 상승

표 9. 가공 수입과일 10대 품목 수입액 비중

단위: %

순위	가공과일				주스	
	2005년		2016년		2016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오렌지주스	17.6	과실·견과류*	14.8	기타단일과실주스	21.3
2	과실·견과기타**	12.7	과실견과기타	14.1	오렌지주스	15.9
3	포도주스	10.2	견과류 조제품***	13.7	과즙음료	13.8
4	견과류 조제품	8.4	과실류의 분·조분	7.2	포도주스	11.3
5	과실각테일	6.6	기타단일과실주스	6.0	사과주스	8.1
6	과실·견과류	6.5	오렌지주스	4.4	자몽주스	6.3
7	기타단일과실주스	5.9	과즙음료	3.8	사과주스****	3.1
8	파인애플*****	5.5	파인애플	3.8	기타혼합과실주스	3.0
9	복숭이*****	2.7	포도주스	3.2	오렌지주스*****	2.7
10	과즙음료	2.6	과실각테일	2.6	파인애플주스	2.2
합계	-	78.6	-	73.6	-	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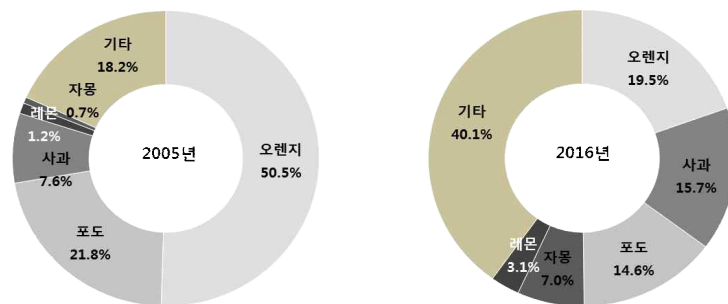
주: *: 초본류 말기, 나무말기 등 이외 기타/냉동, **: 조제저장처리, ***: 낙화생, 밤 이외 기타/기타 방법 조제, ****: 브릭스 20을 초과하지 않음, *****: 설탕 첨가/밀폐용기의 것, *****: 기타 방법 조제, *****: 설탕 첨가/밀폐용기의 것, 넥타린 포함,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브릭스 20 초과.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과일주스의 수입 비중 변화〉

- 국내 소비자의 과일주스 소비패턴 다양화는 주스류 수입품목구조 변화 초래
 - 전체 과일주스 수입량 중 오렌지주스, 포도주스의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한 반면, 사과주스, 자몽주스, 레몬주스의 비중은 비교적 크게 상승
 - 특히, 오렌지, 자몽, 레몬을 포함하는 CITRUS류 주스 가운데 오렌지주스 소비는 감소했고, 자몽주스와 레몬주스 소비는 증가

그림 3. 주스류 수입량 비중 변화



자료: IHS-GTA 통계자료를 기초로 필자가 재구성함.

온대과일 수입대상국 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최근 FTA 효과 등으로 수입선 다변화 추세

4. 세부 품목별 수입선 변화

4.1. 온대과일

□ 온대과일 수입대상국이 미국, 칠레, 뉴질랜드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된 상황에서 최근 FTA 효과 등으로 수입선이 일부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

- 2016년 기준 오렌지 수입량 15만 5천 톤 중 미국산 비중이 94.5%로 대부분을 차지
 - 나머지는 남아공(2.0%), 스페인(1.5%), 칠레(1.1%), 호주(0.8%) 등에서 수입
- 포도 수입량 4만 9천 톤 중 칠레산이 69.3%를 차지하고, 최근 수입선이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임.
 - 미국산 비중은 15.4%로 FTA 발효(2012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며, 페루산(14.7%)과 호주산(0.5%)은 FTA 발효를 계기로 신규로 수입됨.
- 키위 수입량은 3만 1천 톤으로 주로 뉴질랜드산(79.5%)과 칠레산(19.8%)이고, 기타 국가에서는 소량 수입
 - 최근 수입선이 이탈리아(0.5%), 프랑스(0.1%)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그 비중이 매우 작음.
- 체리 수입량 1만 4천 톤 중 미국산이 89.6%를 차지하고, 최근 FTA 효과 등으로 수입선이 다변화됨.
 - FTA 발효에 따른 기준 관세율(34%) 즉시철폐로 미국산 외에도 호주산(2.2%)과 뉴질랜드산(2.0%)도 수입 증가
 - 검역에 따른 반입 금지조치가 해제되면서 2016년 칠레산(5.0%)이 신규로 수입
- 자몽 수입량은 2만 3천 톤으로 수입선이 미국 중심에서 남아공과 이스라엘로 확대
 - 2016년 기준 과거 수입자몽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미국산의 비중은 51.0%를 차지했고, 남아공산과 이스라엘산의 비중은 각각 37.5%와 11.4%임.

열대과일 수입선이 필리핀에 집중된 가운데 최근 작황 부진 등으로 수입선이 다른 동남아국가와 중남미국가로 확대

- 레몬 수입량은 1만 6천 톤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입선은 미국과 칠레에 국한됨.
 - 2016년 기준 미국산, 칠레산 수입량 비중은 각각 83.1%, 13.2%이고, FTA 이행으로 기준 관세율(30%)이 각각 즉시철폐, 10년간 단계적 철폐

표 10. 온대과일 주요 수입대상국 현황(2016년)

단위: %

순위	오렌지	포도	키위	체리	자몽	레몬
1	미국 (94.5)	칠레 (69.3)	뉴질랜드 (79.5)	미국 (89.6)	미국 (51.0)	미국 (83.1)
2	남아공 (2.0)	미국 (15.4)	칠레 (19.8)	칠레 (5.0)	남아공 (37.5)	칠레 (13.2)
3	스페인 (1.5)	페루 (14.7)	이탈리아 (0.5)	호주 (2.0)	이스라엘 (11.4)	베트남 (0.2)
합계	(98.0)	(99.5)	(99.9)	(96.9)	(100.0)	(96.6)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2. 열대과일

□ 열대과일 수입선 중 필리핀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 작황 부진 등으로 수입선이 다른 동남아국가와 중남미국가로 다변화되는 추세

- 2016년 기준 바나나 수입량 36만 5천 톤 중 필리핀산 비중이 83.5% 차지
 - 최근 전염병 발생과 태풍 피해에 따른 필리핀산 작황 부진으로 수입선이 에콰도르(7.0%), 과테말라(4.8%), 페루(2.3%), 멕시코(1.4%), 코스타리카(0.5%) 등 중남미국가로 수입선 전환
- 파인애플 수입량 7만 톤 중 필리핀산이 90.5%를 차지하고, 수입선이 다변화되는 경향이 나타남.
 - 비록 소량이지만 코스타리카(8.2%), 파나마 등 중남미국가와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등 기타 동남아국가에서도 수입
- 망고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16년 수입량은 1만 1천 톤으로 주로 태국(52.4%)과 필리핀(35.0%)에서 수입되며, 수입선이 다변화되는 추세
 - 기타 수입선은 페루(4.6%), 베트남(3.5%), 대만(3.4%), 호주(1.0%) 등이고, 페루와 대만에서는 애플망고가 수입됨.

주스류 수입대상국이 미국, 칠레 등에 집중된 상황에서 최근 수입량 급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선 다변화 추세 뚜렷

- 용과 주요 수입선이 이란에서 미국으로 전환된 이후 미국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근 베트남산 수입으로 수입선 확대
 - 2016년 기준 용과 수입량 5,765톤 중 미국산이 75.2%이고, 베트남산과 이란산이 각각 12.7%와 10.7%임.

표 11. 열대과일 주요 수입대상국 현황(2016년)

단위: %

순위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용과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필리핀	83.5	필리핀	90.5	태국	52.4	미국	75.2
2	에콰도르	7.0	코스타리카	8.2	필리핀	35.0	베트남	12.7
3	과테말라	4.8	말레이시아	0.2	페루	4.6	이란	10.7
4	페루	2.3	대만	0.2	베트남	3.5	중국	1.0
5	멕시코	1.4	태국	0.1	대만	3.4	칠레	0.4
6	코스타리카	0.5	파나마	0.1	호주	1.0	대만	0.0
합계	-	99.5	-	99.3	-	99.9	-	100.0

주: 용과에는 용과 외에 기타 과일이 포함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4.3. 주스류

□ 주스류 수입대상국이 일부 국가에 집중된 상황에서 최근 수입량 급증 품목(자몽·레몬·사과주스)을 중심으로 수입선 다변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오렌지주스는 주로 브라질에서 수입되었으나 수입선이 미국, 스페인, 호주, 태국 등으로 전환됨.
 - 2005년 브라질산 오렌지주스 수입량은 2만 9천 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76.0%를 차지했으나 2016년 그 비중이 31.5%로 하락
- 자몽주스는 주로 이스라엘, 일본에서 수입되었으나 수입량 급증과 함께 수입선이 미국, 베트남, 스페인, 대만, 태국 등으로 다변화
 - 2016년 기준 자몽주스 최대 수입대상국은 미국으로 수입량 비중은 39.2%이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23.1%), 베트남(13.3%), 스페인(10.2%), 태국(7.4%) 순임.

수입과일 선호도 상승, 과일 소비패턴 다양화와 수입선 다변화로 과일 수입 증가 전망

- 레몬주스는 주로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에서 수입되었으나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수입선이 인도, 도미니카공화국, 대만 등으로 확대
 - 2016년 기준 레몬주스 최대 수입대상국은 미국으로 수입량 비중은 30.7%이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24.8%), 이탈리아(19.0%), 인도(7.4%), 도미니카공화국(6.7%), 태국(3.8%) 순임.
- 사과주스는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었으나 FTA 발효와 함께 칠레산과 미국산 수입량이 크게 증가
 - 2016년 기준 칠레산, 중국산, 미국산 사과주스 수입량 비중은 각각 38.0%, 25.3%, 20.9%이며, 칠레산과 미국산 수입량은 2005년 대비 각각 28.8배와 5.3배 증가
- 포도주스는 주로 미국, 스페인에서 수입되었으나 한·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칠레산 수입이 급증
 - 2016년 기준 칠레산 포도주스 비중은 37.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미국산(31.1%), 스페인산(17.7%), 이탈리아산(8.5%), 터키산(3.2%) 순임.

표 12. 주스류 주요 수입대상국 현황(2016년)

단위: %

순위	오렌지주스		자몽주스		레몬주스		사과주스		포도주스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미국	41.4	미국	39.2	미국	30.7	칠레	38.0	칠레	37.9
2	브라질	31.5	이스라엘	23.1	이스라엘	24.8	중국	25.3	미국	31.1
3	스페인	11.8	베트남	13.3	이탈리아	19.0	미국	20.9	스페인	17.7
4	호주	5.8	스페인	10.2	인도	7.4	뉴질랜드	4.2	이탈리아	8.5
5	태국	4.1	대만	7.4	도미니카	6.7	터키	3.9	터키	3.2
6	그리스	1.9	일본	3.1	대만	3.8	스페인	2.4	아르헨티나	0.8
합계	-	96.5	-	96.2	-	92.4	-	94.7	-	99.1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입과일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에 대비하여 국산 과일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시급

5. 시사점

- 전체 과일 수입은 국내 소비자의 선호도 상승과 수입선 다변화로 신선과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신선과일 중에서 온대과일의 수입액이 열대과일에 비해 큰 반면, 수입량은 열대과일이 오히려 더 많음.
 - 즉, 온대과일 소비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열대과일의 소비량이 더 많은 신선 수입 과일 소비구조를 나타냄.
 - ※ 2016년 기준 온대과일 중 오렌지, 포도 수입단가는 각각 톤당 1,423달러, 2,976달러이고, 열대과일 중 바나나, 파인애플 수입단가는 각각 톤당 900달러, 929달러임.
 - 소비패턴 다양화로 사과 외에도 냉동과일과 건조과일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입도 증가할 전망
- 과일 수입대상국 대부분이 FTA 체결국이고 다수의 품목이 양허 대상품목이며, 수입선 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가 과일 수입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향후 FTA 효과 외에 자연재해, 병해충 발생 등에 따른 수출국의 작황 변화도 수입량과 수입선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특히, 품목별 수입선 집중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주요 수출국의 수급상황이 수입품목구조 변화와 수입선 전환을 더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
- 비관세조치(검역)를 통한 특정 품목과 국가에 대한 제한적 수입 허용은 과일 수입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FTA 체결국을 포함한 30여 개 국가로부터 수입금지 해제를 요청받은 식물 견수는 250여 건이며, 이 중 대부분은 과일임.
 - 자국민의 식품안전 및 국내 관련 산업 보호 차원에서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등의 비관세조치가 활용됨.
 - 따라서 FTA 재협상 혹은 검역·위생협상 등을 통한 추가 수입 허용 시 국내 과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 향후 수입과일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산 과일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시급
 - 수입과일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약 28%(국내 생산량: 269.7만 톤, 수입량: 106.4만 톤)로 추정되며, 수입 가공과일(주스, 건조 등)에 수출을 적용하면 점유율은 더욱 상승
 - 품질 개선,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육성, 유통시스템 개선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현행 과수 분야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로 경쟁력을 높여야 함.
 - 과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게 반영하여 품종을 갱신하고 국산 과일을 원료로 한 식품 개발 등을 통해 소비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한편, 신규 과수농가 진입 시 수입과일 도입 시기와 물량, 경합관계,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수입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함.

KREI 현안분석 제36호
과일 수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2017. 6. 27.
발 행 인 김창길
편집위원 김수석, 마상진, 황윤재, 이대섭, 지인배, 심재현, 구자춘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admin@han-d.co.kr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